

어름 한복판. 직장인들이 막바지 피서를 떠나는 요즘, 3천배 철야정진으로 뜨겁게 여름을 달구는 직장불자회가 있다. 바로 철도청 성복승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 퇴근 후 동참한 법우들은 기본, 월차 휴가에 금쪽같은 여름휴가 기간까지 쪼갰다. 자기 참회 없이는 진정한 서원이 있을 수 없다는 법우회원들. 이들이 선택한 '자발적인 고행'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11일 오후 8시 서울 월계동 기원사 대웅전. 죽비 일성에 20여 명의 법우들이 몸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세음보살 정엄불, 거친 숨소리와 흐르는 땀방울은 이미 온몸을 주저앉힌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함과 치열함은 잠시도 수행의 고삐를 놓지 않게 한다. 참회 없는 발원은 자기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 입재식에 앞서 정전영 교화부과(47·현봉)이 3천배 철야정진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참회를 제대로 해야 서원을 크게 세울 수 있습니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마음을 크게 바꿔보려고 법우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직장인 불자들에게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수행의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과 수행'이라는 신행생활의 두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3천배 철야정진에는 철도 공무원 불자로서의 참회도 담겨있다.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와 철도청 파업 등 국민의 불신을 법우회원들이 직접 참회정진으로 씻겠다는 의의다. 열차 사고 희생자의 전도는 물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 기원은 법우회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계속되는 참회정진. 3천배 정진 점검표에 '무애(無碍)'라는 도장이 찍힌다. 108번의 정진 끝에 한 번 찍는 도장. 27번을 찍어야 정진이 회향된다. 새벽 1시 잠깐의 휴식 시간. 모두들 말이 없다. 서로가 느낀 생각을 이미 알고들 있었기 때문이다. 식염수를 마시는 법우, 근육이완제를 먹는 법우. 자신의 정진 점검표를 뜯고리며 들여다보는 법우.

# 3천배 철야정진 일터 불심 '이열치열'

## 철도청 성복승무소 법우회, 정진의 현장



◇철도청 성복승무소 법우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3천배 철야정진에 앞서 <전수경>을 봉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열차사고 희생자 천도·쾌유기원도 겸해 휴가 조정... 식염수·근육이완제로 고통 달래

한 고비 넘긴 끝에 맞보는 여우다.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지만, 법우들과 함께 동참하니 힘이 절로 나오. 그동안 가족 간, 회사 동료간 알게 모르게 있었던 오해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것 같아 환희심이 남다."

다. 김석열 씨(45·금강심)가 미소를 지어 보인다.

다시 시작된 참회정진. 새벽 4시가 되자 철야정진의 끝이 보인다. 무념무상의 경지. 이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나'라는 생각조차 버린 지 오래, 그냥 절을 할 뿐

이다. 말도 생각도 필요가 없다. 법우회원들은 3천배 철야정진으로 한여름 밤을 수놓고 있었다.

박우락 법우회장(56·혜능)은 "이 더운 여름날에 다들 휴가와 내들이 떠날 때, 3천배 정진의 마음을 낸 것만으로도 회원들을 업어주고 싶다"며 "어렵게 회향한 이번 참회정진은 법우회원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진정한 불자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우리불자회는요

###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우리은행 불자회는 지난 1999년 3월 20일 탄생했습니다. 구 상업은행 불자회와 구 한일은행 신행회가 은행간 합병으로 잠시 해체됐다가 다시 합병은행 불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합병은행 불자회로서 직원들간 화합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룰 수 있던 것은 오직 부처님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창립 때나 지금이나 우리은행 내 직원들에게 불법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계가 최대 위기를 겪었던 IMF 한파도 법우들의 불심을 꺾진 못했습니다. 불자회원

상략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불교 노인시설이나 불교관련 단체에서도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법우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신의 신행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내면을 반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무 장소가 각 지점으로 흩어져 있어 법회 등의 모임을 갖기가 곤란했었습니다. 또 조금씩 줄어드는 회원 수도 적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자회원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동료들에게 불자회를 알렸습니다. 또 출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 IMF 아픔 딛고, 행내 제일 신행단체로

### 봉사 강화·부산불자회와 합동법회 추진



◇우리은행 불자회원들이 지난 7월 장애아 복지시설 서울 상략원에서 아이들을 안고미소 짓고 있다.

모두가 곳곳이 모임에 이르면서 오히려 신심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직원 감원바람은 우리 불자회에도 몰아쳤습니다. 300여명이 넘던 법우들이 150여명으로 줄고, 많은 법우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수록 정기법회는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열렸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소공동 본점에서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을 지도법사로 감도법을 들으며 신심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우리불자회는 사회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장애아린이 생활복지시설인 서울

보니 지금은 은행 내에서 제일 유명한 신행모임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기법회는 물론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상략원 방문 자원봉사 횟수도 늘리고, 많은 불자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 우리은행 부산불자회와도 자주 만나 합동법회를 병행해 법우애를 진하게 나눌 겁니다. 무엇보다도 불자로서 부처님께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참다운 불자승인상을 확립해 모범을 보이는 불자회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정진호 회장

### 평창경찰서 불자회 14일 창립

회장에 유상민 씨, 경승 네분 위촉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어 직장 내 신행활동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경찰서 불교회가 결성됐고, 청주시 공무원 불자회가 내달 9일 초 경에 창립된다.

강원도 평창경찰서 불교회는 14일 서내 대강당에서 불교회 창립 기념 법회 및 경승 위촉식을 불행했다. 이날 법회는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경승단 강원지단장)의

법어, 유상민 불교회장의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또 경승으로 상원사 주지 정엄, 월정사 재무 승원, 극락사 주지 자용, 대덕사 주지 일진 스님 등이 위촉됐다.

평창경찰서 불교회는 이번 창립법회 준비를 위해 지난 11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초대회장에 유상민 청문감사관을, 총무에 최동을 경무계장을 선출했다. 또 한달 간의 회원모집

에 들어가 현재 21명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관내 60여 개의 지역 사찰을 순회하는 법회를 병행키로 했다.

평창경찰서 불교회 유상민(49) 회장은 "많은 경찰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회를 마련하고 싶다"며 "불교회원들이 생활불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공무원 불자회도 오는 9월초에 맞

### 청주시 공무원불자회 9월 출범

지도법사 철우 스님, 초대회장 신대희 씨

춰 창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학술세미나실에서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가진 청주시 공무원 불자회는 초대회장에 신대희 내덕1동장을 선임하고, 지도법사는 청주 법안정사 철우 스님을 위촉했다. 또 불자회는 정기법회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고, 정관 작업 등 제반준비를 마치는 대로 창립 법회를 병행키로 했다.

김철우 기자

### 불자회 발족 2편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2003 학년도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시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3기생을 모집함

<b>불교학과</b>	근원불교, 대승불교, 화엄사상, 인도불교, 유국불교, 한국불교, 불교개론, 불교어, 불교사상, 불교역사, 불교법률, 불교미술 등 18과목
<b>한문학과</b>	한문법(1), 한문법(2), 장자, 주역, 논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선가귀감
<b>불교미술학과</b>	1 불화(단청), 2 선화(단청), 3 불화 2, 4 불화 3(이문과 실기)
<b>팔리어학과</b>	1 팔리어문법 2 팔리어 강독
<b>사불수행반</b>	불, 보살 상호를 관행에 의해 사불하는 수행과정
<b>바라반</b>	1 천수바라, 2 나비춤 등
<b>다도학과</b>	1 한국다도, 중국다도, 현대다도(1), 현대다도(2) 등
<b>우리춤학과</b>	1 우리춤기본, 승무기본, 작법, 복, 장단

<b>다도학과</b>	(9월 9일 오후 2시 개강)
<b>교과목</b>	한국차문화사(중국, 일본, 유럽) · 계다학(1), (2), (3)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헌 · 차식문화 · 차식분학
<b>지도교수</b>	이리케 교장선생님 / 선혜스님 등

<b>바라반</b>	(9월 5일 오후 3시 개강)
<b>교과목</b>	1 천수바라 2 나비춤 전통바라
<b>지도교수</b>	지도스님

<b>부설 팔리어 강좌</b>	(9월 5일 오후 7시 개강)
<b>교과목</b>	팔리어 문법, 팔리어 강독
<b>지도교수</b>	최종남 교수(승가대)

<b>사불수행반</b>	(9월 16일 오전 10시30분)
<b>교과목</b>	관법의 자제, 보살초, 신중초, 영신회상도, 사경, 번상도
<b>기간</b>	· 기본 : 4개월(16회) · 연구과정 : 기본과정이상
<b>지도교수</b>	법인스님(사불수행 지도법사)

<b>불교인문학과</b>	(9월 4일 오후 7시)
<b>교과목</b>	· 한문법(1), 한문법(2) · 신심명, 장자, 주역, 천자문 · 선가귀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b>교수진</b>	김형중법사,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법사

<b>불교미술학과</b>	(9월 3일 오후 2시)
<b>교과목</b>	초상기, 배접, 전통색채, 불화초, 보살초, 신중초 단청기법, 단청용유 등
<b>지도교수</b>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b>우리춤학과</b>	(9월 3일 오후 4시)
<b>지도교수</b>	이예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b>교과목</b>	1 우리춤 기본 2 승무 기본 3 작법 기본 4 복과 장단기본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 교육 전문 도량 동산불교대학**

##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윽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 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징**

-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 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벽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서리 웨슨 될 열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용결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 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드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분회에서라도 직접보여 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윽함이 똑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크스님에게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쪽씩 놔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 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카드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